

원불교의 청소년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장 하 열

(원광보건대학)

《요약》

본 연구는 원불교의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 일원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영구적 가치를 각성케 하고 사은 사상에 근거하여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윤리관계'에 바탕하여, 청소년이 터득해야할 도덕교육의 내용을 조명하였다. 또한 삼학 사상에 의해 지, 정, 의를 종합하고 이를 '용심법'을 활용하여 마음(본성)을 찾고 길들여 도덕성을 구비하고 자율적인 도덕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추출하여 청소년의 도덕교육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 하고자 한다.

I. 서론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환경적으로 오염과 생명경시의 풍조, 가정적인 불안, 학교환경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원폭력, 인정받지 못함 등과, 시간적으로 세기말의 흥분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 등을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적 위기 현상들은 끝을 모르는 듯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어 그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차우균, 1998: 1).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이 처해있는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품성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일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권혁환, 1996: 2). 수세기에 걸쳐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때 그 해법을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교육과 발전에서 찾아보려 하였으며 그 때마다 청소년 인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 시기의

지적 발달과 도덕성의 발달을 밀접한 관련성을 두고 연구하였고 청소년의 인격교육을 위해 청소년의 도덕성의 함양과 도덕적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실험정신은 이러한 도덕적 기준들에 의하여 문제행동으로 분류되고 지탄을 받게 되어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그러한 시행착오적 결과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도덕교육의 방법상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청소년의 도덕교육을 위하여 우리는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고 청소년의 행동이 이러한 규범과 일치하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도덕적 행동을 수동적으로 이끌어 오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도덕교육은 도덕적 판단의 틀 속에서 도덕적 실패에 대한 불안이나 죄의식을 조장하기 쉬우며 집단따돌림이나 학원폭력, 성폭력 등 곳곳에 위험상황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순발력 있게 대처 할 수 있는 도덕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는 종전의 도덕교육 중에서 타당한 점을 포괄하면서도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덕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불교 사상에 나타난 도덕적 원리를 깨달아서 내면화하는 '도덕적 원리의 각증'과 현실과 상황에 부딪혀 도덕적 실천에 접근해 가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의한 도덕교육의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도덕적 사태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되는 원불교의 '용심법'의 활용을 통한 접근 방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은 원불교의 사상에 내재된 도덕교육의 사상을 청소년을 위한 도덕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으로 논의하여 청소년의 도덕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II. 종교와 도덕교육

1. 종교의 개념

종교는 인간 삶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종교는 숭고하고 위대한

대상인 초자연의 신을 숭배하고 신앙하여 안심입명을 얻으려는 교의라고 정의하고 있다(한한대자전, 1987: 350). 여기에서 그 숭앙의 대상은 곧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종교는 인생의 '궁극적 관심'을 포함하고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며 인간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중국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종교개념은 윤리의 상벌, 인간성의 완성, 우주의 원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다. 상벌은 종교의 진로를 사회적 도덕적인 관계로 이끌어 인간세계 위에 도덕적 기틀을 뿌리 내리게 하였다. 인간본성의 회복을 통한 인간의 완성은 도를 획득하는 것이며 불성을 깨닫는 것이며,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종교를 우주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혼이 의미하는 것은 만물의 신비이고 우주전체에 그 영혼이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이다(이사봉, 1953: 134). 종교는 완전성, 절대성, 영원성 등으로 표현되고있는 궁극적인 세계를 사모하며 회귀하며 실현하려고 한다(박선영, 1998: 28). 종교란 궁극적인 관심에서 출발하며 그러한 관심은 종교들이 가지고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인간능력의 이상에 대한 믿음이다. 둘째, 유사한 의식이다. 셋째, 종교적 교훈이다. 넷째, 구원관이다(김하태, 1959: 17-20).

이러한 특징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종교는 사람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의식은 초월적 힘에 의한 구원을 기원하는 방법이며 궁극적 존재와의 부단한 교섭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종교적 교훈과 관련하여 종교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면 종교는 자비, 사랑, 은혜, 봉사, 겸양 등 인간이 함께 사는 데 필요한 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종교의 의미는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사회와 도덕적인 인간 세계를 정립하는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도덕의 가치가 지향하는 점은 궁극적으로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2. 도덕의 개념

도덕은 인간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본 원리이다. 도덕은 강제성은 없지만 인간이 인간과 자연과 균형을 이루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실

천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덕의 원리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도와 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자어의 ‘道’는 길을 의미하고 ‘德’은 큰 품행, 은혜 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덕은 큰길, 품행의 길, 은혜의 길이라고 풀이 할 수 있다(남궁달화, 1998: 3). 도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가는 길인 천도가 있고 사람의 실행 행적으로 나타나는 인도가 있다. 천도는 시공을 초월한 자연의 기본원리인 형이상자적인 보편원리이다. 그리고 덕은 시공에 대 처하는 인간행위에 나타나는 도의 구현(具現) 또는 증시(證市)된 형이하자적 실제 행동이다(최극호, 1989: 49~50).

도로써 파악된 원리가 인륜적 체계에 전화(轉化)되었을 때는 당연히 인륜의 이법과 실천적 행위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행위 하느냐’라는 당위가 요청될 것이다. 이러한 당위의 행위는 도덕적 행위이며 이것은 선한 행동 또는 의로운 행동을 지향하려는 인간심리의 반영이며, 선을 옹호하려는 사회심리의 반영을 의미하게 된다(이영문, 1995: 54).

종교와 도덕의 관계는 어떠한가. 종교는 언제든지 혹종의 기성도덕을 보유하는 것이다. 종교는 무엇보다 먼저 인류의 윤리적 경향을 가장 성실하게 증언하며, 도덕의식을 표현하며 종교는 역사적 발전의 장구한 과정에 있어서 도덕적 이념의 유일한 보유자인 것이다. 기성도덕은 거의 전부가 종교적 세계관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덕은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시 하르트만, 1979: 101). 그러므로 종교는 정의와 자비와 사랑 등의 도덕적 속성으로 신을 특징 지으면서 기존의 도덕적 관념과 이상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즉 그들이 경배하는 신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로 제시되었다(이돈희, 1986: 160).

3. 청소년의 도덕교육

청소년이 안고있는 도덕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며 청소년이 도덕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장세대인 청소년이 도덕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자유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들의 교우관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집단따돌림’과 ‘학원폭력’ 그리고 ‘환경문제, 생명의 경시풍조’, ‘경노, 효친의 문제’, ‘질서의식의 회복’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혼시적 타율에 의해서 이루어 가기가 힘든 부분이다. 청소년들이 은적 관계를 이해하고 도덕 의식을 깨침으로서 진정 무엇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가를 알고 대처능력을 길러줌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도덕교육의 목적과 도덕교육 내용, 도덕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모색을 통하여 해결의 길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도덕교육의 목적을 제시할 때 우리는 단편적인 선행과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도덕교육이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도덕원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근원적인 목적을 세우고 도덕의식을 각성하여 내면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도덕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이 인간과 자연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생적 관계를 이루려는 도덕적 원리를 각득 하고 있는 그대로 믿으며 진리를 믿게 하며, 청소년의 도덕교육의 방법은 도덕교육의 내용들이 사물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어 자신의 마음작용과 행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원래자리에 대조하여 대중잡을 수 있을 때 힘이 길러지는 것이다. 새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도덕교육은 도덕이 왜 우리 삶에 유익을 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공부 인가를 알게 하며 청소년 자신이 도덕의 훈련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게 하여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III. 원불교의 청소년 도덕교육 목적

원불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목적은 청소년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의하여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도덕적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물질의 세력을 행복 받아 나와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하여 청소년은 영구적 도덕가치를 체득하고 매사에 인과보응 하는 이치가 있음을 알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1.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영구적 도덕가치를 알게 하는 것

급격한 사회변동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치의 무감각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정신 상태를 초래하였다(김태훈, 1993: 167-168). 그리하여 외면적 가치인 물량적 가치나 명예에 대한 가치 등 일시적이고 단편적 가치를 위하는 생활이 되고 있다. 물량적 가치인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지나치게 중시하면 쟁투를 초래하고 명예에 대한 가치의 지나친 추구는 시기와 질투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영구적인 도덕가치의 추구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외면적 가치에 비해서 청소년들에게 더 깊고도 장구한 내면적 가치관이 자리잡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면적 가치 우위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내면적 가치는 청소년에게 영적, 정신적, 심리적 가치지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문제이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주는 것이다.

원불교 사상에서는 영구적 도덕가치의 원류로써 일원상 진리를 제시하여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에 의한 가치판단의 기본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원불교 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덕교육의 목적은 일원상 진리가 내포하고 있는 우주만유의 본원(『정전』 교의편, 1985: 23)에 근거하여 우주자연의 본질에 바탕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일원상 진리는 제불제성의 심인(『정전』 교의편, 1985: 23)이며 이 말의 뜻은 일원상 진리는 모든 성인들이 깨달음을 통하여 인증한 경지이다. 성현은 마음에 일원상 진리를 그대로 내함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성현이 깨달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까지 영구적인 도덕적 각성을 하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일원상 진리는 일체중생의 본성(『정전』 교의편, 1985: 23)으로써 일원상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일체중생의 본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의 본질적 내면으로서 지극히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다. 특히 인간자아의 탐구를 통한 도덕성을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우주적 자아에 눈뜨게 하는데 도덕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사상의 본질에는 청소년이 추구해야 할 영구적 도덕가치의 원리와 이러한 원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실천방안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2.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도덕적 실천력을 기르는 것

원불교의 개교의 이념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원불교개교의, 1985)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개교의 동기에서 제시하고 있다. 즉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원불교 개교의 동기, 1980: 21)고 제시한 것이다.

사실적 도덕이라함은 도덕이 현실에 부합되고 생활에 일치하며 인간생활에 실다운 이익과 보람을 가져다주는 도덕형태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성인의 성스러운 뜻을 실제 생활과 조화 속에서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이며, 온 인류에게 실현시켜 평화 안락한 세상을 이루자는 것이다. 성인의 뜻이 인류를 영원히 낙원세계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사실적 도덕은 인격 형성에 유익을 주는 도덕이어야 한다.

둘째, 사실적 도덕이 되기 위 하여는 현실생활에 유익 주는 도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실적 도덕은 시대를 유익 주는 도덕이어야 한다.

넷째, 사실적 도덕은 대중에게 유익을 주는 도덕이 되어야 한다(송천은, 1992).

따라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인격형성과 현실생활과 시대와 대중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는 개인의 생활과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뿐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사회도덕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청소년의 인격을 수련하고 삶의 본질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 가자는 것이다.

IV. 원불교의 청소년 도덕교육 내용

도덕은 큰길, 품행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인

간은 존재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보은의 길을 걸음으로써 도덕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천지의 도와 덕을 체 받아서 그 도와 합치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에 상응한 의무 실천으로써 보은의 실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의 실천은 선과 악을 판단하여 가리기만을 원한다면 그렇게 강렬한 의무감은 느끼지 않는다(김형석, 1992: 122). 원불교 사상에는 의무감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이 바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이다. 이 사은은 “인간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정전』 사은, 1985: 참조)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의무적인 보은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도형이 사은과 도덕과 윤리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사은은 일원의 형상 있는 면을 주체 삼아 만유생성의 기본적인 관계를 은으로 밝힌 것이니 천만 도덕의 현실적인 근원이 되는 것이며 모든 윤리규범의 사실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신도형, 1992: 79)라는 점은 음미 할만하다. 논자는 이러한 사은 구조를 청소년의 도덕 교육내용으로 설정해 보았다. 그것은 생명·환경중시의 도덕, 경노·효친의 도덕, 공동체의식의 도덕, 질서의식의 도덕 등이다.

1. 생명·환경 중시의 도덕

원불교의 사은사상 중 첫번째는 천지의 은이다.

천지의 은혜는 하늘과 땅과 나와의 사이에 맺어진 은혜의 관계를 드러내어 은혜 입은 바와 은혜 갚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천지은에 대해서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일원의 밝음, 풍·운·우·로의 혜택, 천지의 무한한 수(생명)를 얻게 된다고(『정전』 천지은, 1995: 26) 말한다. 천지은은 큰 기틀이 하나로 연해진 대기동체 은, 우주의 삶의 근원이 되어준 생명근원의 은, 상이 없이 무한히 베풀어주는 무량시주 은, 온 누리를 항상 맑게 정화해 주는 환경정화 은(한기두, 1996: 168~169)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청소년의 도덕 교육내용으로 다시 연결해서 표현해 보면 그것은 생명·환경의 도덕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천지에 배은을 한다면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정전』, 천지은, 1985: 30) 오늘날 모든 생명이나 환경은

인간중심의 물질개발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하늘이 주는 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하늘이 직접 주기도 하지만 인간이 저지른 결과에 대한 인과적인 고통이다.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각종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패해 상황은 이러한 인과적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을 손상시키는 모든 일들은 인과의 섭리에 의하여 내계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여 일, 월, 성, 신과 풍, 운, 우, 로, 상, 설에 대한 오롯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도덕생활 이어야 한다. 청소년은 생활속에서 생명을 중시하고 환경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보은하는 내용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2. 경노·효친의 도덕

원불교의 은사상은 보은과 감사를 아울러 밝힌 지은과 보은을(『정전』, 사대강령, 1985: 4)하는 교리의 강령으로 제시하여 과거 유교에서 천을 중시하던 은 관념을 돌려 사은의 덕목 위에 부모은을 세운 것(유병덕, 1971: 114)이 또 하나의 특성이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오...(『원교전』, 사은, 1985: 31)

부모은이란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부모의 존재가 아니면 태어나서 살지 못하는 관계, 즉 없어서는 살지 못할 기본적인 관계이므로 그 자체를 은혜로 파악한 것이다. 즉 부모은은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 무자력할 때에 생육하여 주신 대은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정전』, 사은, 부모은, 1985: 31)이 부모은의 요지이다.

부모에 대한 보은의 특징은 자신을 생육해준 친부모에게 효도함은 물론 무자력자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경노·효친의 도덕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부모은에 보은이며 무자력자를 돕는 것이 부모보은이다. 이러한 부모보은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밝을 것이요,

둘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心志)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셋째,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涅槃)하신 후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넷째,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정전』, 사은, 부모은, 1985: 32)

무자력자 보호를 통한 청소년의 도덕교육은 자녀에 의한 존속 폭력이나 살인, 부모를 멸시하는 풍조, 경노정신이 희박한 현실에 적절한 도덕 교육의 내용일 뿐 아니라 복지 사회를 구현해 가는 원리가 될 것이다.

3. 공동체 의식의 도덕

원불교의 「동포피은의 강령」에서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정전』 사은, 1985: 33~36)

라고 밝힌 바와 같이 동포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기본적인 관계’이다. 인류는 물론, 금, 수, 초, 목까지도 포함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일체 유정무정(有情無情)의 생명체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므로 내게 이로움을 준다거나 또 해를 주는 그런 상대적인 상황이 문제시되는 것이 아니며 그 근원적인 의미에서 동

포라는 존재 자체와 관계 맺음으로써 살 수 밖에 없는 기본적인 생존관계를 동포은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공동체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내용이다. 자리이타란 대승보살이 닦는 수행의 태도로서 서로 도와주고 의지되어 지는 협동적 유기적 관계를 말한다. 곧 각자의 위치에서 근실하게 활동하여 서로가 공정한 입장에서 맺어지는 관계, 다시 말하면 자신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움을 가져오게 되어 서로 잘 살 수 있는 은혜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자리이타의 덕행은 도덕적으로 조명될 때 의무론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식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서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여야 하는 의무감에서 지켜야 할 내용인 것이다.

동포보은의 핵심적인 의미는 은혜의 도리로 맺어진 관계를 자리이타의 도로 상생적으로 유지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금, 수, 초, 목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정전』 사은, 1985: 35)고 강조한 대목에 이르면 원불교 사상이 도덕적으로 지향하는 낙원세계는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상생적 관계의 지향이다. 동포은의 사상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식의 도덕실천으로 인간 상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상생 조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포보은의 자리이타의 도덕정신은 청소년들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까지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관용으로 대하면서 ‘참 훌륭한 나 소중한 우리’라는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도덕교육 내용을 자각한 청소년은 또래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원폭력, 절도 등으로부터 벗어나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질서의식의 도덕

원불교의 법률은은 인간이 진리와 모든 법률에 어긋남이 없고 남에게 피해를 되지 않는 심신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보은을 통하여 질서의식을 가지게되고 또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원불교의 법률은에 의한 피은조목은

첫째,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서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밟게 하여 주시미요,

둘째,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셋째,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 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정전』 사은, 1985: 37)이다.

법률은 인간사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원적 질서로서 그 자체를 체 받음으로써 대 보호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이다. 법률은 근원적 의미에서 이법(理法), 그 자체이며 존재하여 관계를 맺으면서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질서는 개인에서 세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실천해갈 내용이며 내적으로 정신적인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과 외적으로 사회적인 법률의 이해와 그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법률은에 보은한 결과는 “우리 자신도 법률의 보호를 받아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향상되며 세상도 질서가 정연하고 사, 농, 공, 상이 더욱 발달하여 다시 없는 안락 세계가 된다 …”는 것이다.

법률배은의 결과는 우리 자신도 법률이 용서하지 아니하여,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될 것이요,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며 세상도 질서가 문란하여 소란한 수라장이 될 것이라고(『정전』 사은, 1985: 39) 하였다.

위의 원불교 도덕교육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의 인간 중심의 사상에 있어서의 보은사상보다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까닭은 인간의 존재근거를 자연의 은혜와 사회의 은혜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간은 인간 단독체로서 이해되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 내지 자연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이 은혜의 관계와 인간성에 의해 존립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인간실존을 고립적 존재로서 이해하여 ‘관계성’을 소홀히 다루려는 경향성을 불식시키고 다른 생명이 없이는 인간은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각성 시켜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위의 네 가지 은혜에 대해 보은행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덕교육의 내용은 오늘날 청소년의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V. 원불교의 청소년 도덕교육방법

청소년의 도덕교육의 실천적 방법으로 삼학의 수행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인간이 인간된 소이는 타고난 본성이 도덕적이라는 점이다. 삼학은 수양, 연구, 취사의 수행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본성을 회복하여 도덕적 존재로서 인격적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청소년은 인격이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삼학수행을 통하여 본성적 자기를 체로 하여 인성을 길들이고, 그러한 인격을 현실 생활에 응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청소년은 도덕적 자기실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가능성적 존재인 바, 자기완성의 마땅한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삼학 정신은 청소년의 도덕성의 수행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본다.

삼학은 일원상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일원상 진리의 수행은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본성인 도덕성에 바탕하여 도덕성을 원만히 성취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윤리를 실천할 주체인 인간을 자율적인 도덕적 존재로 성숙시키는 방법이다.

소태산은 삼학수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부의 요도 삼학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고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에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시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 그러므로 나는 영육쌍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일심 알음알이, 실행의 3건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대종경』, 교의품 18장)고 하였다.

또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삼학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사 같은 지라, 지남침과 기관사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삼학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 나가기 어렵나니라(『대중경』, 교의 품 22장) 하였다.

삼학의 수행방법은 인도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남침과 같은 안내역할을 한다. 삼학수행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도덕실천을 위한 주체확립의 방안이다. 그리고 삼학은 개인의 단순한 인격고양을 위한 수행일 뿐만 아니라 바른 가정생활, 사회생활, 도덕적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수행방법이다. 삼학의 수행은 인간생활을 떠나지 않고 활동하는 일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도모함이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다. 인간생활을 떠나지 않는 인격수양으로서 수행을 위한 수행이라기 보다는 가정 및 사회를 바루고 정당하게 하는 도덕지향의 수행이다. 청소년 도덕교육의 방법으로 삼학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삼학의 수양, 연구, 취사와 용심법을 통해서 청소년 도덕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정적(情的) 수양의 방법

정신수양은 나의 마음을 살피면서 달아나는 마음이 무엇이며 그 달아나는 마음을 찾으려는 마음은 무엇이고 찾아서 내가 간직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분하여 정(定)의 세계에서 영지의 광명이 솟아나게 하는 공부이다. 청소년의 도덕교육에 있어서 한없이 분화되고 다양한 생각 속에 잠겨 있는 청소년들을 한 생각으로 모아서 지혜의 혜광이 솟아나게 하는 정신수양의 분야가 정적 수양의 방법이다.

소태산은 정신수양의 요지를 『정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룸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

에 끌리지 아니하며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정전』 교의편, 1985: 50~51).

그 요지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곧 정신수양이라 표현할 수 있다. 정산은 그 대의를 “망념을 닦고 진성을 기름(修其忘念, 養其眞性)”(『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9장, p.1032)이라 하였다. 또한 정신수양의 목적에 대하여 소태산은 “천지 만엽으로 벌여 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정전』 교의편, 1985: 51)라고 밝히고 있다.

인간의 성품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일원상의 진리와 동일한 것으로 분별과 주착 선악이 없는 것이나 욕심의 경계를 따라 습관과 업력에 끌려 성품 본래의 지공무사하고 원만구족 함 즉 온전함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욕심으로 인하여 악을 범하게 되고 도덕적 자주성이 회박해 지므로 이 욕심의 경계를 없애고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결국 정신수양의 궁극적인 것은 진리합일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면 정신수양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소태산은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 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성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정전』 교의편, 1985: 52).

결국 정신수양을 하면 얻게되는 수양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신비적인 정력 등이 아니라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에 있어서 마음의 자주성을 가진 도덕판정의 준거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정산은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변수와 동할 때 마음이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안다”(『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6장)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역시 동과 정간에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수양력이며 정신수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수양은 순수자아인 도덕성을 발굴하기 위한 정(定)을 세우는 방법으로서 좌선과 염불 그리고 기도를 권하고 있다. 그러한 생활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혼탁에 물들지 않는 정신력을 스스로 축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율적인 도덕적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적(知的) 연구의 방법

청소년에게 도덕교육의 내용 중심으로 지적인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머리중심의 지식전달 형태가 아니라, 영원성의 세계를 향한 각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두나 성리 등은 교리나 성현의 가르침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체득케 하는 중대한 실마리가 된다. 이는 결국 일원상 진리의 궁극적 실체와 함께 만남으로 진리의 빛을 체 받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그리하여 체 받는 내가 주체적으로 그 빛을 발현하여 주변의 여러 청소년 동료와 가정과 사회에 확산시켜 가는 방법이다. 지적연구의 방법은 의두, 성리등을 잘 활용하여 성현들이 가르치는 바를 중심으로 도덕적 지식(지혜)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치를 꿰뚫어 알아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도덕교육의 방안임을 인지해야 한다.

소태산은 사리연구의 요지를 정전 삼학 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사(事)라 함은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룸이요, 이(理)라 함은 곧 천도의 대·소·유·무를 이룸이니 대라 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룸이요,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룸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춘·하·추·동 사시순환과 홍망성쇠의 변태를 이룸이며 연구라 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궁구함을 이룸이니라(『정전』 교의 편, 1985: 52~53).

이처럼 사리연구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연마하는 것이며 인간사나 삼라만상의 본원을 광범위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지혜를 모두 포함하여 궁구하는 도덕교육의 방법이라 하겠다.

소태산은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 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겨 결국 연구력을 얻을 것이니라”(『정전』 삼학, 1985: 53)라고 하였다. 사리연구를 통해 사리를 모두 걸림 없이 통달하게

되는 지혜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적연구의 방법으로서의 사리연구는 인간 본성인 도덕성을 잘 알기 위한 지혜의 수련이다. 즉, 안으로 진리를 연구하고 밖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도덕적 결단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3. 행적(行的) 취사의 방법

행동적 측면은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수양으로 일심된 역량을 지혜의 마음으로 단련하여 결국은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위에서 예를 든 정적수양의 방법과 지적연구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행동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성공의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원불교 교리에서는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의 6근의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정전』 삼학, 1985: 54)이라고 작업취사의 요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정산은 “취사란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리는 것(取其中正 捨其邪曲)”(『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9장)이라고 그 대지를 말하고 있다.

작업취사는 청소년에 있어서 보통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굳은 습관 등에 끌려 올바르게 실행하지 못하여 스스로 고(苦)를 자초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기 위하여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실천공부이다. 따라서 이것은 도덕적인 행동을 수행 하는 것이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작업취사의 결과에 대하여 소태산은 “우리가 작업취사 공부를 오래 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에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있게 버리는 관행의 힘을 얻어 결국 취사력을 얻을 것이니라”(『정전』 교의편 1985: 55)라고 제시하고, 정산은 “취사의 결과는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응변 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며 취사의 표준은 중정(中正)”(『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7, 18장)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작업취사의 결과는 모든 심신간의 작용을 함에 있어 내외로 가장 바르고 편착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의 방법이다.

이상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즉 삼학의 대의와 목적 그리고 결과 등을 도덕교육의 방법과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이처럼 정적수양과 지적연구와 행적취사는 원불교의 도덕교육의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 도덕적 인격수련이 가능한 것이다.

4. 용심법적 방법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가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념 혹은 품성을 갖도록 해야한다(김해성, 1984:120). 여기에서 도덕적 행동을 위한 신념과 품성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느끼며 그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을 원불교에서는 용심법, 마음공부, 심전계발 등으로 표현하여 가르치고 있다. 소태산은 용심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음쓰는 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천하에 벌어진 모든 바깥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들려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대종경, 교의품30장)

여기에서 인용한 내용은 바른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물질문명을 선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용심법은 위에서 살펴본 세 종류의 방법을 조화롭게 응용하며 순발력 있게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종합적인 방법이다. 물론 용심법의 활용에서 판단의 준거는 일원상의 진리이며, 사문에 대한 보은이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용심법을 활용함에 있어서 일원상 진리에 합일하여 있는 우리의 본래마음에 대조하게 함으로서 삼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음공부에 활용하게 하는 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일깨워주는 결과를 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 ②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를 세우자.
- ③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 의계를 세우자.
- ④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 ⑤ 원망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 ⑥ 타력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 ⑦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⑧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⑨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정전, 1985: 34).

‘일상수행의 요법’에는 원불교의 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덕목화 하고 있다. 위의 1-3조에서 나오는 심지(心地)는 본래마음이며, 구체적으로는 선악, 시비, 이해를 초월한 인간의 본성마음 이다. 또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은 우리의 마음이 무명에 가리운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무명이 되는 것은 탐, 진, 치 때문이다. 탐한 욕심이 사람의 원래 마음을 가로막는다. 사람의 화낸 마음이 순진 무구한 원래의 마음을 잃고 사납게 된다. 어리석은 마음이 일을 그르치며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탐, 진, 치는 분별심과 주착심 때문이다. 분별심은 선,악 귀, 천과 시, 비, 이, 해를 분별하여 한쪽으로 끌려가는 마음이다. 주착심은 자신의 습관이나 선호하는 쪽으로 만 편벽 되게 붙들려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 분별심과 주착심을 내는 주체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경계를 당할 때마다 내 마음을 반조 하면서 자성의 정혜계를 세워 수행하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시해야 할 사항은 경계(境界)의 의미이다. 경계란 내 마음을 요란하

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르게 하는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이라고 본다. 즉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람은 이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 원래의 마음 상태를 유지 할 수 있겠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한 경계에 대처하기 위한 단계를 설정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단계 ;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그 경계를 바라보는 단계

제2단계 ;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경계를 통하여 내 마음을 반조 하는 단계

제3단계 ; 내 마음의 본원을 각성하여 원래 마음(본성)을 회복하는 단계

제4단계 ; 경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안해(定, 慧, 戒) 지는 단계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들이 상황을 부적절하게 대처했어도 경계 따라 일어난 것 이므로 자성의 정혜계를 세워 본래 훌륭한 자신임을 깨닫게 하므로 도덕적 실패에 대한 불안이나 좌절(자존감 하락)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서 청소년 이 잘못된 행동을 부담없이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을 체득 하며 즉 지극히 자율적인 태도로 청소년 삶의 오류들을 수정해 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이 경계에 처한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반조 하면서 원래의 마음(본성)을 비추어 스스로 편안한 마음상태를 유지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를 사고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며 지혜(연구력)를 발전하고 행동(취사력)하게 된다.

논자는 청소년들에게 ‘용심법’적인 방법으로 도덕교육의 실천 방법을 적용한 결과 어떠한 사태에서든지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으면서 바른 실천이 이루어 지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종교교육학회지 제5권, 1998: 154-178참조).

청소년기의 삶의 문제인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 등 대인관계 문제와 금전문제, 환경과 생명에 관한 문제, 교통법규나 직장업무 등에서 나타나는 규율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고 문제가 차차로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원불교 교리에 함장되어 있는 청소년 도덕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조명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고 청소년의 도덕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원불교 사상에 나타나 있는 도덕교육의 목적은 일원상 진리의 믿음을 통한 영구적 도덕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교의 동기에서 정신개벽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도덕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나누어 논의 하였다. 원불교의 청소년 도덕교육의 내용은 사은사상에서 도출하여 인간에게 '서로 없어서는 살수 없는 생명적 관계윤리'를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에서 추출하여 사은의 은혜에 보은하는 것이며 보은행위를 통해서 환경, 경로효친, 공동체의식, 규율준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도덕교육의 방법으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삼학수행)을 통해 순발력 있게 경계를 발견하고 대처함으로서 도덕적 실패에 의한 불안, 죄의식 같은 심리적 부정절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스럽게 청소년의 창의력이 발달하도록 모색 해 보았다. 삼학의 수양, 연구, 취사는 청소년의 지, 정, 의를 통한 도덕교육적 접근으로서 수행(修行)을 통한 도덕교육의 방법이라면 용심법적 방법은 마음 바라보기, 마음 반조하기, 원래마음 회복하기 등의 단계를 거쳐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연구에 바탕하여 청소년의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에게 우주의 궁극적 원리와 성인의 깨달은 마음을 청소년의 본성적 자아로 각성시키어 마침내는 자신의 도덕성으로 내면화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제시하는 도덕교육의 내용들을 그들의 '생명적 관계'에 직접 연결된 은혜의 윤리로 파악하여 상생상화와 감사생활이 유지되도록 한다면 환경, 생명의 문제, 경로효친의 문제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나 학원폭력 등의 부도덕에서 오는 제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셋째, 청소년들이 어떠한 도덕적 사태에도 그 상황에서 스스로 마음을 찾고, 마음을 보면서 원래의 마음(본성)에 바탕

하여 그 마음을 잘 사용(행동화) 하도록 하는 ‘용심법’적인 도덕교육의 방법은 오늘날의 청소년에 대한 도덕교육의 새 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원불교 사상에 의한 도덕적 판단과 도덕교육으로 형성해야 할 인격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혁환(1996). 초등 도덕교육의 인격교육 접근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길(1981). 윤리학. 서울 : 박영사.
- 김태훈(1993). 도덕판단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하태(1959). 교와 기독교.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해성(1994). 시민사회 도덕원칙으로서 합리적 이기주의와 그 가치.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 학위논문.
- 남궁달화(1998). 도덕교육론.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김형석(1992). 윤리학. 서울 : 철학과 현실사.
- 대산종사(1986). 정전대의. 익산 : 원불교 출판사.
- 서경전(1991) 교전개론 익산 : 원광대학교 출판국.
- 신도형(1994). 교전공부. 익산 : 원불교출판사.
- 송천은(1992). 열린시대의종교사상. 익산 : 원광대학교출판국.
- 유병덕(1971).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 시인사.
- 안이정(1997). 정전해의. 익산 : 원불교출판사.
- 이돈희(1986). 도덕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 원불교교전(1985). 익산 : 원불교출판사.
- 이영문(1999). 도덕과 교육. 서울 : 형설출판사.
- 장하열(1990). 청소년교화의 이론과 실제. 익산 : 원불교출판사.
- (1998).원불교의 청소년 인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 5권. 서울: 한국 종교교

육학회.

정산종사 법어집(1985). 익산 : 원불교 출판사.

차우규(1998). 초, 중학교 학생들의 도덕의식 및 도덕성 문제에 관한 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극호(1989). 동양윤리학사. 서울 : 새문사.

하르트만 저. 전원배 역(1979). 윤리학. 익산 : 원광대학교 출판국.

한국종교교육학회(편)(1998).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서출판 아름다운세상.

한기두(1985). 원불교정전연구. 익산 : 원광대학교출판국.

한한대자전(1987). 서울 : 민중서관.